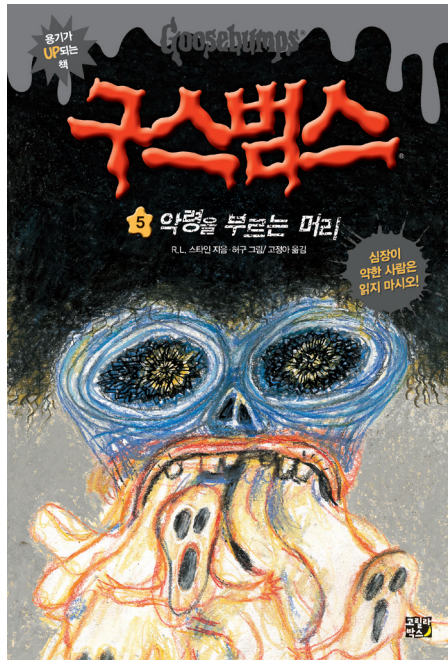


전 세계 32개 국, 4억 2천 만 어린이의 선택
구스범스, 드디어 5권 출간!

구스범스[®]

시리즈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R.L. 스타인 지음 ·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 2014.9.25 발행 / 140*205 / 무선제책 / 각 권 8,500원 / 978-89-6548-167-6 74840(세트)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 게임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시무시한 진짜 정글에 떨어졌다!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베스트셀러 시리즈 구스범스. 지난 6월 국내 출간 즉시 교보 및 Yes24 1위에 오르며 한국 어린이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 다섯 번째 책 『구스범스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출간되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드물게 세계에서 인정받은 어린이 호러문학의 걸작이다. 작가 R. L. 스타인은 어린이문학 계에서 세계적인 스릴러 작가 스티븐 킹과 비견되며,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의 작가(Gon-cc, 일본 블로거)”, “무서운 이야기를 유쾌하게 쓰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작가(칼리베라, 이탈리아 독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 시리즈는 아동 상담 전문가 권윤정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시켜 자기 안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호러’라고 해서 잔인한 오락물이 아닐까 염려하는 어른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건강한 호러문학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5권은 게임광 마크가 마치 컴퓨터 게임 속 세상처럼 외부와 단절된 섬에 초대받아 게임보다 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 호러 스릴러다.

재미있는 해외여행인 줄만 알았던 정글 탐험은 기괴한 식물과 주먹만 한 곤충, 사나운 맹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가 된다. 게다가 믿었던 어른까지 악마보다 사악한 악당이었던다니……. 사람이라고는 자신과 악당뿐인 이 섬, 두려움 가득한 낯선 공간에서 마크와 독자들은 극단의 공포를 마주치게 된다.

자, 이제 정글 마법의 비밀을 털어내! 전 몰라요. 전 그렇게 특별한 거 모른다고요

‘내게 마법의 힘이 있다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한번쯤 해봄직한 공상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 마크에게 어느 날 그 공상은 현실이 된다.

마크는 과학자 이모로부터 쭈글쭈글 말라비틀어진 머리를 선물 받는다. 대체 이 징그럽고 기괴한 건 뭘까? 그날부터 마크의 평범한 일상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모의 초대로 떠난 정글의 섬, 외딴 감옥 같은 그곳에서 마크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모는 행방불명되었고, 마크를 반겨 주었던 정글 섬 과학자는 잔인한 악당이었던 것. 설상가상, 악당은 마크에게 고대 정글의 마법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주문을 외우면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정글 마법! 하지만 마크에게 그런 대단한 힘이 있을 리 없다. 그때 쭈글쭈글한 머리에서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순간, 마크는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비밀을 알게 된다.

자신이 엄청난 고대 마법의 주문을 알고 있는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

그러나 칠흑 같은 정글의 밤, 기괴한 새의 울음소리, 끈질기게 뒤를 밟는 추격자가 마크는 두렵기만 하다. 이 지옥 같은 섬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는 걸까?

컴퓨터 게임광, 온몸으로 현실을 만나다!

이 책의 주인공 마크는 컴퓨터 게임 하며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 현실에서는 통통하고 운동 신경 없는 아이지만 게임 속에서는 정글의 덩굴을 타고 훨훨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정글은 확실히 다르다. 다리를 휘감는 덩굴들을 헤치고, 온몸을 기어 다니는 주먹만 한 붉은 개미 떼를 쫓으며, 굶주린 호랑이를 피하면서 마크는 게임과 실제의 차이를 깨닫는다.

‘이 상황이 컴퓨터 게임이라면 덩굴을 타고 탈출할 텐데, 또 실패해도 한 판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마크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해야 할 타이밍은 딱 한 순간뿐이다. 마크는 이번엔야말로 게임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에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간다.

게임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만나는 마크의 모습은 가상과 실체가 모호한 현대 사회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너도 세상에 직접 부딪혀 봐!”

과연 이 책은 결말은 어떨까? 반전을 놓치지 않는 작가 스타인은 우리 아이들을 강력하게 응원한다. 두려워하는 세상을 직접 느끼고 만지고 다치면서 이겨 내 보라고. 아이들에게는 저마다의 특별한 ‘정글 마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리즈 소개]

구스범스 시리즈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힌 어린이 책.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소윤경 그림 노은정 옮김

결결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 방 안을 돌아다니는 시커먼 그림자. 과연 인형의 정체는?

02. 가면의 복수 오윤화 그림 고정아 옮김

친구들로부터 늘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칼리. 헬러윈 날 끔찍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03. 빈집의 숨바꼭질 조원희 그림 노은정 옮김

아만다는 자꾸만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04. 여름 캠프의 악몽 조승연 그림 고정아 옮김

여름방학을 맞은 빌리는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무성한 숲 한가운데 캠프장.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허구 그림 고정아 옮김

과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가면과 정글로 오라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근간]

06. 미라의 저주 (가제)

07. 늑대인간이 우는 밤 (가제)

* 구스범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으로 꼽힌다.

www.rlstein.com

그린이 허구

서울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광고와 홍보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다가 어린이 책에 재치와 개성이 가득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린 책으로는 『말하는 까만 돌』, 『거꾸로 세계』, 『커피우유와 소보루빵』, 『우리 나라가 백 명의 마을이라면』 등이 있다.

옮긴이 고정아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구스범스 2 가면의 복수』, 『공포의 학교』, 『킹콩』, 『제트기만큼 빠른 개 길들이기』, 『새를 사랑한 소년』, 『꼬질이 버티』, 『아이비랑 빈이 만났을 때』 등이 있다.

편집장 송재우 편집담당 전지선(내선 319)

홍보담당 김수진 이시윤(내선 366)

마케팅담당 전병우 박병국(내선 216)